

“수의·염습봉사도 훌륭한 포교 방편”

새 천년을 뛰는 불자 (8-판)

장례의식 연구가 남민이

최근 <이 세상 가며 가며 가장 값진 옷 한 벌>(솔바람 판) 등 수의와 염습에 관한 책을 펴낸 남민이(44, 서울보건대학 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의와 염습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도 저술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스님들에게는 경전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殮襲) 교육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스님들도 천주교처럼 임종한 신도의 염습과 극락왕생 염습을 해야 합니다. 속초 보현정사 홍구스님은 신도들의 염습부터 49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돌봐줘 이지역 주민들은 모두 보현정사 신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포교인 것입니다.”

남씨는 불교가 천주교에 신도를 빼앗기는 이유의 대부분은 스님이 임종시 지키지 못

고 임종 후에도 스님의 극락왕생 염습 듣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수의는 남자용, 여자용, 공용으로 나뉜다. 상례절차는 대개 초종(初終), 염습, 성복, 치장, 제의로 되어 있다. 초종은 운명하여 숨까지의 절차, 염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혀 입관시키는 과정, 성복은 상복을 입는 것, 치장은 장지에서 땅을 파서 묻고 봉분을 올리고 잔다를 입히는 과정이며 이를 끝낸 후 반혼제, 소상, 대상 등을 치루는 것이 제의이다. 남씨는 이 가운데서도 초종과 염습에 대해 연구하는데 입적하신 스님의 염습방법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방승대에서 가정학을 전공하고 동국대에서 의류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남씨가 염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다. 이후 관련문헌과 교육기관 등을 찾아왔으나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불교방송에서 원광생교육을 접했고 불교연호회와 연이 닿았다. 이것이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남씨는 말한다.

불교연호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자 5년째, 염습봉사는 평생 할 일이 되었다. 중부대와 한경대에서 의류학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남씨는 작년 보전대에서 장례지도사가 생긴 후 장례역사, 종교와 장례의례, 한국민속학 등 세 강좌를 맡았다. 생활한복에 대해 쓰던 박사논문은 염습봉사로 인해 수의와 염습에 대한 논문을 올리고 잔다를 입히게 이치런 다른 길을 열어준 것이다.

미국 장례협회에도 등록되어 있는 남씨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례지도사 분석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에 출간된 <장

국내 첫 박사논문 제출 5년째 염습 자원봉사 “스님도 왕생염불해야”

해 수의와 염습에 대한 논문을 올리고 잔다를 입히게 이치런 다른 길을 열어준 것이다.

미국 장례협회에도 등록되어 있는 남씨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례지도사 분석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에 출간된 <장



의사 직무분석) 편찬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장례지도사를 키우는 전문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유망직종 1위로 뽑힐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전문직종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고 강조했다.

남민이씨는 “서울시민 중 화장인구가 50%가 넘었다고 할 정도로 화장이 늘고 있는 수백만 원 대의 수의를 입히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요? 저는 화장시 수의 개선법과 지역마다 다른 장례의식을 종합한 일률적인 방법 제시를 위해 연구할 생각입니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조계종 재무부장 심경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재무부장에 심경스님을 임명했다. 54년 총복 보은 출생인 심인 재무부장 심경스님은 정무스님을 은사로 용주사에서 출가, 69년 진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3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니를 수지했다. 96년부터 용주사 총무국장 소임을 맡아왔다.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스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은 14일 포교부장에 상운(범어사 교무국장)스님, 포교국장에 주경(수덕사 교무국장)스님을 임명했다. 상운스님은 73년 능가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으며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본사-조계종 정대스님에 고승메달 증정

20세기 한국을 빛낸 고승 16분의 기념메달을 제작, 보급하고 있는 한국조계종사 이석복 감사(사진 왼쪽)와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은 15일 조계종총무원을 방문,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2차분 8분의 기념메달 1세트를 증정했다. 1차로 나온 8분의 기념메달은 지난 해 5월 전달한 바 있다.

정대스님은 “불자들이 고승기념메달을 많이 소장해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항상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방송 성낙승사장 정년퇴임식

불교방송(직무대행 도후스님)은 14일 3층 대법당에서 ‘제4대 성낙승사장 정년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불교방송을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며 “여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새천년 불교방송으로서 거듭나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전북불교예술제·사상 강연회

전북불교회관(주지 도영·금산사주지)은 12일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주 시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북불교예술제 및 근일스님(부석사 주지, 봉황선원 선원장) 초청 사상 강연회를 개최했다. 예술제는 바라밀합창단과 가수 도신스님, 테너 천성남의 음성공양, 전통무용, 사물놀이, 댄싱 등으로 진행됐다.



◇불광사는 16일 광덕스님 열반1주기를 맞아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 봉정식을 가졌다.

광덕스님 1주기 추모법회

단행본 ‘광덕스님의 생애와...’ 봉정

불광사(주지 보하이담)는 16일 덕림(범어사 전계대화상) 성오(범어사 주지) 지관(가산문화원장) 중원(제주관음사 주지)스님등 사부대중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덕스님 1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법주 지정스님은 “현대불교 생활불교 가정불교를 정착시키기 마하반야바라밀 전법의 햇빛을 높이 드셨던 큰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햇빛이 더욱 활짝 타올라 수 있도록 정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관스님은 법문을 통해 광덕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이 녹아 있는 육념(염불, 염법, 염상, 염계, 염시, 염천)의 가르침을 가슴

에 새겨 더욱 수행하는 불광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 보하이담스님은 광덕스님 열전에 단행본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을 봉정했다.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됐으며, 1권에는 광덕스님의 반야바라밀 사상과 전법과정 45년사와 반야바라밀 사상체계와 실천원리가 정리되어 있다. 2권에는 25년간 펼쳐온 불광운동의 확산과 전개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돼 도심포교 등에 유익한 포교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3권에는 불광회 불광법의 관계자료와 연보 및 연혁을 부록으로 정리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어린이 한자’ 출판기념회
해종 (사)불국토사회연구소장은 28일 오후 5시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부모은중경)을 토대로 펴낸 <어린이 한자>(부다가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회암문도 합동추모제
종결 화엄사 주지는 20일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조실각전스님을 비롯한 모든 문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암문도 합동추모제 및 새해 통알(通謁)의식’을 봉행했다.

실천승가회 29일 총회
청화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의장스님은 29일 오후 3시 파주 보광사에서 실천승가회 2000년도 총회를 개최한다.

충북도·불협의회서 법문
해광 속리산 법주사 주지는 1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불협의회 신년법회에

대불어 26일 정기총회
덕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 회장은 26일 부산 시청 동백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544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한다.

‘반야심경’ 시상강좌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3월 2일~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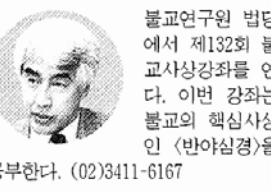
중강서성 불교유적 탐사
최석환 불교문화사 발행인은 한중만(원광대) 조용현(원광대) 교수 등과 함께 21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강서성으로 선차 및 불교 유적탐사를 갖는다.

행원문화상 추천발아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월 31일 제23차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 29일 시상식을 갖는 제9회 행원문화상 수상자의 추천을 6월 30일까지 받기로 했다. 제9회 행원문화상은 역경·문학·예술·대중예술 등으로 나뉘어 각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불자들을 선정 시상한다.

하버드대 교환교수 마쳐 새시집 ‘남과 북’ 출간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은 2월 초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환교수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국을 떠나 있는 1년여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의 주 3회 강의와 유럽여행 그리고 무려 2백편에 가까운 시를 썼다. 고은 시인은 귀국과 함께 새시집 <남과 북>(창작과비평사)을 출간하는 한편, 지난 10일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서울지법에 청구했다.



공부한다. (02)3411-6167

2000년도 연수·연구과정 신입생 모집

본 불전국역연구원은 국역사 양성과 불전(佛典)의 정리 및 연구 번역과 출간에 주력하여 불교중흥의 토대를 이룰 목적으로 '93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역경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비구·비구니 및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2000학년도 연구과정 및 연수과정 봄 학기 개설강좌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개설강좌 교재 담당교수	화엄학특강 (화엄경현담) 해남스님	관리어 기초 백도수 교수	외전연구 (논어) 권영대 교수
	능엄경연구 해정스님	연영대 교수	육조단경 증범스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00년. 1. 25.(화) ~ 2. 25.(금) 나. 강의시작 : 2000년 3월 6일(월) 다. 강의시간 : 오후 7시~9시 라. 접수처 :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 마. 문 의 : TEL. 02)929-9991 FAX. 02)928-4302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불전국역연구원

대륙 황토방 · 황토주택

▲ 황토주택 ▲ 토굴 황토방

- ① 양질의 순수 황토만을 사용하여 시공
- ② 전통 방식의 구들시공
- ③ 풍부한 건축 경험으로 완벽한 시공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남2동 424-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인간과 미래를 생각하는 열린교육의 장

2000학년도 봄학기 불교교육과정 원생모집 안내

과정명	세부과정명	과목명	교과목명	교과목명	주/야
교양교육과정	불교란 무엇인가?	I	관기승	1학기	주간
	좌선법의 이해와 실제	I	관기승	1학기	주간
	신앙(4학기 과정)	기초반	관기승	1학기	주간
		중급반	관기승	1학기	주간
전문교육과정	사 각(佛敎)	원광사상	관기승	2학기	주간
		조용현	관기승	1학기	주간
	불교문화교육(4학기과정)	불교문화의 이해	관기승	1학기	주간
		기초문화사상	관기승	1학기	주간
통신교육과정	강연연구 불교영어 학부세특	원광사상	관기승	1학기	주간
		원광사상	관기승	2학기	주간
	통신교육과정 (4학기 과정)	신학의 이해	관기승	1학기	주간
		한국 불교의 이해	관기승	1학기	주간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교통편리! 우수한 강사진! 학교편의시설 활용!

학점은행제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를 학점은행제에 의거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이러한 학점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되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은 교육부 학점은행제 시행운영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98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16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

TEL: 02) 2260-3728-9 / FAX: 02) 2260-3730 홈페이지 : http://home.dongguk.ac.kr/~soedu